학교법인 경희학원
KYUNG HEE UNIVERSITY SYSTEM

‘변신적 변화, Metamorphosis’를 향한 경희의 도전

- Kyung Hee Medicine 출범에 즈음해 -

2026.10.2.
경희의료원 개원 55주년 기념식 기념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10여 년 만에 이 강당을 방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경희의료원 개원 55주년입니다.
지난 55년의 세월에 담긴 수많은 분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미래를 위해 서로 격려와 성원을 나누는 날입니다.

55주년은 학원 차원의 기념일은 아닙니다.
10년 주기의 기념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을 특별히 기념하는 이유는 축하하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경희 의료인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취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결산 이사회는 경희의료원의 중증질환 · 연구 중심 병원 정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재정 안정기로 전환한 일.
‘의료 질과 환자 경험 평가’에서 최정상의 위상을 확립한 일.
이사진 모두 함께 축하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성취를 기쁘게 생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료기관의 성취는 경희학원 역사의 좋은 기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료원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희의료 탄생 55년, 그리고 그 후

조금 전 개원 55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국민의 것이고, 국가에 헌납한다…’
그 역사적인 설립의 서사와 함께 경희의료원은 출범했습니다.

더 큰 포부도 있었습니다.
“질병 없는 인류사회.”
경희의료는 지난 반세기 넘게, 초창기 개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 의료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그 꿈 덕분이었을까요?
70, 80년대, 경희의료는 진료, 연구, 공적 실천, 의료 설비와 시설 면에서 국내외 의료를 선도하는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신생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그 성취는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오늘은 개원 55주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특별합니다.
전환의 시대, 아주 큰 문명사적 전환의 과업입니다.
인류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명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례없이 깊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 환경, 생태 위기.
기념 영상 도입부에서 보았듯 오늘, 이 시점은 이례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구행성사회의 위기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질병과 팬데믹의 출현.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의료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전환적 국면도 있습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인간과 AI, AI와 AI의 상호 연결이 지식과 상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심연(深淵)이 만들어낼 불가측의 미래가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세기 초 태동한 양자 과학의 새로운 조명과 발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간 진전을 거듭하면서 양자 과학은 이제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양자 중첩과 얽힘, 궁극적 결맞음….
초 미시와 초 거시의 사물과 현상을 잇는 양자 세계에 관한 깊은 지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만사만물(萬事萬物)에 내재한 양자의 속성, ‘고유성’과 ‘즉시성’의 비밀을 푸는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양자 세계가 새로운 인간의 사유와 문명사적 대전환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백악관 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분야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공의 압축, 조작 기술을 생활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정책 서클 내에서는 이런 말도 회자됩니다.
머지않아 '미래를 예측 가능케 할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마치 연금술과도 같은 이런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바탕에는 양자 과학과 그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전환적 국면, 유례없는 문명사적 변화가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멀리 보면, 앞으로 산업발전은 과거와 전혀 다른 발전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축으로 제도적, 문화적 대변동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가능성을 잇는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작된 전환적 기류가 인류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생존'과 '실존'의 과업.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해법은 양자 과학 이해, 인문 · 사회과학적 성찰, 미래학적 분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의 깊은 이해와 해석, 예찰에 따라 미래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관 운영, 기관의 '생존'과 '실존' 차원에서 더없이 절실하고 긴급한 물음입니다.

'Kyung Hee Medicine' 출범의 문명사적 함의

경희의료는 중증질환, 연구 중심 병원으로 위상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떤 진료와 연구, 협력 체제의 방향성과 함께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생존을 넘어 실존의 과업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해 온 "질병 없는 인류사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을 오늘 이곳에 불러오기 위해, 경희는 이제 무엇을 해낼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Kyung Hee Medicine'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경희의료의 미래 비전을 공표했습니다.

비전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찬 도약을 위해 전환 시대에 걸맞은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경희 내 협력뿐 아니라, 담장을 넘어 새로운 협력 체계, 넓고 깊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고립과 단절의 시대가 아닙니다.
포괄적 교류와 협력, 국내외 연계 · 협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초연결의 시대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안에 자리 잡은 연결의 신비를 풀어갈 힘의 원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학문과 학문, 학문과 세계, 학문과 미래를 잇는 교류 ·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대변혁의 시대.
교류 · 협력, 연계 · 협력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향해 온 경희의료의 향상을 위한 소중한 공적 실천입니다.

이제 세상은 실시간으로 지식과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인적 교류와 협력은 더 수월하고 원활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힘으로, 교류 ·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유대와 제휴의 길을 서둘러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관의 생존을 넘어 우리가 지향해 온 실존적 가치,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미래, 의료 · 보건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미도(未到)의 세계.
복합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아주 큰 전환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적극적인 도전 정신입니다.

난치병, 불치병의 치료와 완치.
불가능해 보일수록 우리는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첨단 연구, breakthrough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 전문화와 미래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로, 미래로."
지금은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60, 7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그러나 이미 그 시기부터 미래 세계를 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경희."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래를 오늘에 불러와, 세계적 탁월성을 지향해 가는 일.
경희 역사 속에 깃든 기관 운영의 좌표입니다.

그 좌표와 함께 오늘, 경희의료원은 <비전: Kyung Hee Medicine>을 선포했습니다.
"Kyung Hee Medicine."
단지 4개 병원을 통합한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질병 없는 인류사회" "선도 연구, breakthrough 연구"를 기반으로 한 중증질환, 고난도 진료에 도전하는 병원.
그 길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상급병원으로 거듭난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인류의 질병 치료와 완치를 선도할 연구 중심 병원, 중증질환 병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더 높은 취지를 품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Metamorphosis'

경희의 전통 속엔 경희 고유의 시대의식이 있습니다.
'생성과 변화를 거듭하는 세계.'
그 세계의 이치를 깨달아 인류사, 문명사에 공헌하자는 마음과 시선이 있었습니다.
'온오한 학술 연구' '변전하는 세계' '진리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자….'
우리 모두 기억하는 이 문구엔 경희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 나아가 미래에도 소중히 지켜갈 경희의 유산이자, 미래 가치입니다.

이와 함께 경희는 70년대 초부터 문명사적 변화의 흐름을 예찰했습니다.
'Metamorphosis'라는 화두를 기관 운영의 중심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어원으로 보면, 'meta'는 초(超)라는 의미입니다.
'morphosis'는 형태 형성, 형태 발생을 뜻합니다.
합하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신적 변화', '혁명적 변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 더 깊이 실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위기와 기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계'입니다.
앞서 말한 기후, 환경과 생태, 감염병과 새로운 질병의 출현, 그리고 식량 위기….
그러나 한편으로는 AI 시대, Quantum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인류사를 되돌아볼 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창조해 가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더 높은 세계의 문은 기관이 그 책임을 수행할 때 열립니다.
위기의 시대, 모두에게 주어진 '생존'의 과업.
더 값진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수적인 '실존적 가치'의 지평.
문명사적 변혁의 시대, 변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전례 없는 과업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희의료, Kyung Hee Medicine은 미래의 과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희의료는 침체기를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극복했습니다.
이 또한 경희의료 역사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 저력으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과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은 변신적 변화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의료진, 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돕고 밀어주고 성원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 선도적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유례없는 시대의 위기는 인류 진화의 새로운 “golden opportunity.”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원 55주년.
‘국민에게 헌납된 기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스스로 떠안은 경희의료.

미래를 전망하면서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깊고 폭넓은 변화를 이뤄낸다면, 새로운 경희의료, Kyung Hee Medicine이 꿈꾸는 창의적 선도 병원, 세계 굴지 병원은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일의 현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처우와 복지도 최고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Metamorphosis.
전환적 역사의식 속에서 미래의 과업을 수행하는 일은 경희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생존과 실존, 인류의 더 나은 미래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경희학원은 경희의료의 미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출범 55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